

2026년 2월 3일

# Macro Snapsho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helloym@kiwoom.com

키움증권

## 차기 연준 의장 변수와 QT의 현실성

미국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지명된 이후,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금융시장 내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물가 압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정책금리 인하에는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를 축소해 재정정책에 대한 연준의 관여를 줄여야 한다는 견해 역시 밝혀온 바 있다. 이러한 다소 모호한 정책 인식은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의 성향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대차대조표 규모를 축소할 경우, 중장기 시장금리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며 시중 유동성 여건을 타이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우려와 달리 대차대조표 축소(QT)를 본격적으로 재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10월 FOMC에서 연준은 대차대조표 축소를 12월 1일자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보다 빠른 판단이었다. 그 배경에는 단기자금시장에서의 긴축 조치가 있었으며,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가 이미 매우 완만한 수준에 이르렀고 추가 축소를 통해 얻을 실익 또한 제한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미국 단기자금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QT의 현실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적자 기조 속에서 단기 국채 발행에 대한 수요 기반 확보 필요성과 지급준비금 축소에 대한 우려를 고려할 경우, 별도의 완충 장치 없이 QT를 재개할 경우 단기자금시장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준이 지급준비금 관리 매입 프로그램(RMP)을 도입한 점은 단기 유동성 완충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RMP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4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으로 연준은 은행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과 단기 유동성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준이 지급준비금이 충분한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에 따라 단기 국채 매입을 통해 충분한 지급준비금 공급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감안하면, 케빈 워시 후보자의 개인적 견해만으로 QT가 단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준의 정책 결정이 의장 1인의 판단이 아닌 집단적 의사결정 체제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과거 연준 인사들 역시 경제 여건에 따라 정책 스탠스를 조정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워시 역시 취임 이후에는 당시의 경제 상황에 맞춰 보다 유연한 정책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